

북스

Books

항몽전쟁 통해 본 시대의 자주정신

‘몽골 군 사들은 고려의 남녀 20만6천800명을 잡아 가고, 살육된 자는 이 루 셀 수가 없었다. 그들이 지나간 곳은 모두 잿더미가 됐다.’

조선 초기 쓰여진 ‘고려사(高麗史)’에서 항몽전쟁을 설명한 구절이다. 언론인 출신 구조서씨가 ‘항몽전쟁-그 상흔한 기록’(전 3권)을 출간했다. 저자는 꼼꼼한 취재로 몽골이 1230~70년대 40여년 동안 6차례 고려를 침공했던 역사적 사실을 정리했다.

이 기간 동안 끊이지 않았던 고려 조정 내 사대(事大)를 주장하는 화친파와 자주(自主)를 주장하는 항몽파 간의 싸움도 사실적으로 복원했다. 이 책이 지금의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외교 정책의 큰 틀인 사대와 자주가 13세기 고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살림·각 권 1만5천원〉



2,600년간 제국에선 무슨 일이?

이스탄불 존 프리리 지음

영화 ‘노팅힐’에서 여행서적 전문서점을 운영하는 윌리엄(휴 그랜트 분)은 손님으로 온 인기 최정상의 할리우드 배우 안나(줄리아 로버츠 분)에게 열렬한 표정으로 한 권의 책을 권한다. 1996년 영국 펄컨출판사에서 출간된 ‘여행/역사’ 시리즈 중 하나 ‘Istanbul-The Imperial City’.

전문가가 손님을 권했던 이 책이 ‘이스탄불-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제국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한국어에서 출간됐다. 원서를 출간한 출판사의 시리즈 이름처럼 여행서적이자 역사서이기도 하다. 흑시 여를 터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독서 목록이고, 아니라면 2천년 넘게 제국의 도시로 남아있는 이스탄불의 역사 여행이 될 만하다.

저자 존 프리리는 미국인이지만 1960년부터 이스탄불의 대학 강단에 서면서 그 곳에 정착한 인물로, 터키인보다 더 이스탄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자랑한다. 저자 스스로 이 책을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자체의 전기”이자 “유적들에 대한 안내서”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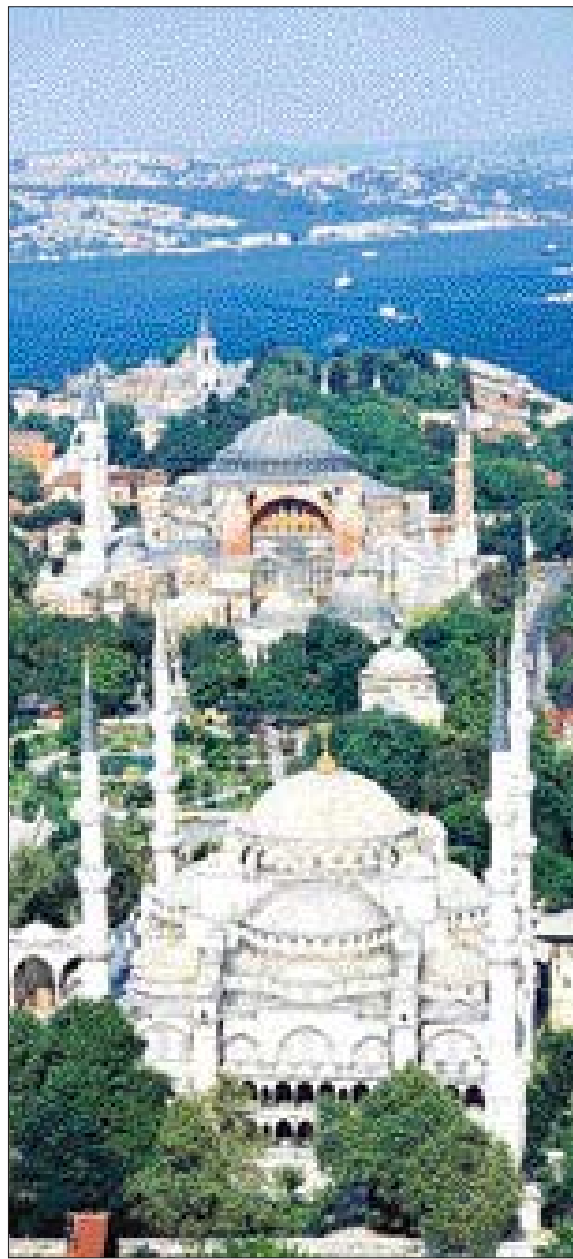
이스탄불은 기원전 658년부터 기원후 330년까지 ‘비잔티움’으로, 이후 1453년까지 ‘콘스탄티노플’로 불렸다. 책은 시대 순으로 나열돼 지난 2천600년 동안 이스탄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도시 곳곳에 남겨진 건축물들은 그 존재만으로 도시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한다. 부록으로 ‘건축물에 대한 주(註)’를 따로 할애하고 삽화를 넣어 이해를 도왔다.

그리스 도시국가로 부침을 거듭하던 ‘비잔티움’은 AD 330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 곳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성벽이 확대되고 도시가 정비된다. 황제는 도시를 자신의 이름에서 딴 ‘콘스탄티노폴리스(영어로 콘스탄티노플)’라 칭하고, 40일 동안 하기가 이레네(성 평화 대성당), 히포드롬 등 도시 곳곳에서 창건 기념행사를 열었다. 동로마(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천년 동안 제국의 수도로 자리매김했던 콘스탄티노플은 1453년 터번을 쓴 검은 피부의 무슬림에게 점령당한다.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하기가 소피아 대성당은 모스크 사원으로 변신했다. 오스만 제국의 이스탄불은 1923년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 측으로 참전했던 터키의 패망 전까지 이슬람 세계의 정치·경제·문화의 최대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다.

저자는 이스탄불의 대표 건축물 하기가 소피아 대성당, 오스만 술탄들의 궁이던 톱카프 궁전, 17세기에 건축된 블루 모스크 등 건축물을 소개하고 평범한 도시 사람들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는다. ‘술과 물의 도시’로 불리던 비잔티움에서는 창녀 노예상들이 돈을 벌었고, 콘스탄티노플의 공중목욕탕은 사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오스만 제국의 황제와 술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일화들은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한 또 하나의 ‘아라비안나이트’로 읽힌다.

〈민음사·2만5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체계적으로 분석한 ‘미인학’

미인 조용진 지음

미인(美人)은 천부적으로 타고난다는 관념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성형을 통해 신체의 모든 부위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는 풍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시대, 민족을 가리지 않고 미인은 존재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인을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정작 왜 미인으로 보이는 지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얼굴학자 조용진 교수의 ‘미인’은 미인의 기원과 변천사, 미인들의 얼굴형, 사람들이 미인을 인식하는 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미인학(美人學) 개설서다.

저자는 관념적으로 인식되는 미인을 설명하기 위해 해부학, 도상학, 인류학, 미학 등 다양한 학문적 프리즘을 동원한다.

그는 미인이라 하면 쾌감을 유발하는 세 영역, 즉 이성을 관장하는 좌뇌와 감성을 주관하는 우뇌, 야성을 자극하는 뇌간을 모두 균형있게 자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목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우뇌를 통해서만 미인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과 숫자 학습을 통해 좌뇌를 활성화해 미인을 균형있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렇다면 미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필자는 옷은 모습으로도 충분히 미인이 될 수 있다며 웃음을 권장한다. 미인의 얼굴에 나타난 입꼬리 모양과 일반인의 옷은 얼굴에서 드러난 입꼬리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미인은 중성형 얼굴을 갖



고 있다. 외국 유명 배우들의 얼굴에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인 등 다양한 인종들의 특징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한국 배우들의 얼굴에서도 일본, 중국인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고대 인물의 얼굴에도 이같은 특징이 반영돼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여자인데도 그 얼굴에 남자인 다빈치의 얼굴이 들어있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에서도 여성의 얼굴의 흔적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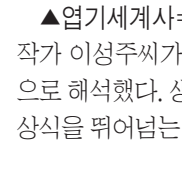
저자는 학문적으로 미인을 추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려준다. ‘시대별 미인의 기준’ ‘미인이 단명하는 이유’ ‘미인과 속담’ ‘연예인들의 얼굴이 작은 이유’ ‘미인은 목소리가 좋지 않다’ 등 각종 속설의 탄생과 기원을 분석하고 있다.

〈해냄·2만9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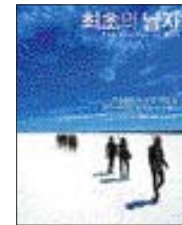
▲달의 바다=‘문학동네작가상’의 열 두번째 수상작. 신에 정한아씨가 썼다. 언론사 입사시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주인공 은미는 할머니의 권유로 15년 전 소식이 끊겨 미국의 NASA에서 일한다는 고모를 찾아 미국으로 떠난다.

〈문학동네·8천500원〉



▲업기세계사=‘업기 조선왕조실록’, ‘업기 조선풍속사’ 등을 쓴 작가 이성주씨가 이번엔 세계사를 그만의 발칙하고도 독특한 시선으로 해석했다. 생계를 위해 군사학 과외를 했던 갈릴레이 등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세계사 속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추수밭·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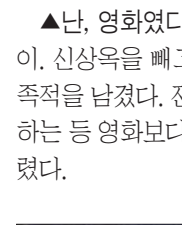
▲최초의 남자=유전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스펜서 웰스가 인류 최초의 남성 ‘아담’의 흔적을 추적했다. 저자는 부계로만 전달되는 성염색체 Y염색체의 경로를 통해 인류가 어떻게 분지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는지 밝혀낸다.

〈사이언스북스·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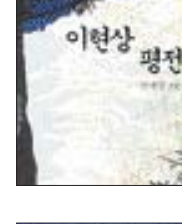
▲한밤중에 행진=‘공중근로’ 제131회 나오키상을 수상한 오쿠다 히데오의 장편소설. 작가 특유의 유머와 해학이 그대로 살아 있는 범죄소설이다. 전혀 다른 출신·성격의 세 청년이 야쿠자의 도박장에서 우연히 마주쳐 10억엔을 탈취하기로 의기투합한다.

〈재인·9천800원〉



▲난, 영화였다=지나해 타계한 고(故) 신상옥 감독의 자전 에세이. 신상옥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한국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전성기를 누리다 남북돼 탈북 후 할리우드에서 재기하는 등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았던 고인의 ‘마지막 글들이’ 실렸다.

〈랜덤하우스·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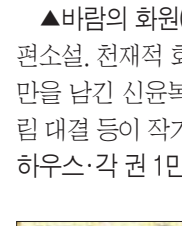


▲이현상 평전=‘빨치산의 전설적 지도자’ 이현상(1905~1953)의 생애를 ‘경성트로이카’의 작가 안재성씨가 복원했다.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역사의 뒷안길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이현상을 재조명하고, 유격대를 이끌었던 그가 ‘한국의 체 게바라’라고 말한다. (실천문학사·1만5천원)



▲시각별 여행사=사하라 사막에서 살던 유목민 소년 무사앗사리드가 마을 속의 친구 ‘여린왕자’를 잃은 뒤 생텍쥐페리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난다. 그는 마법과도 같은 문명세계에 감탄하지만 이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음을 발견한다. 사막 소년이 문명에 띄우는 메시지가 아름답다.

〈문학의숲·1만800원〉



▲바람의 회원(전 2권)=‘뿌리깊은 나무’의 작가 이정명씨의 새 장편소설. 천재적 화가이자 궁중화원이었지만 단 두 줄의 역사적 기록만을 남긴 신윤복을 다뤘다. 김홍도와와의 만남과 이별, 두 천재의 그림 대결 등이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숨가쁘게 펼쳐진다.〈밀리언 하우스·각 권 1만원〉



▲한국의 퍼스트레이디=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까지 8명의 역대 영부인들을 다룬다. 언론인 출신 조은희씨는 대통령을 움직인 여인들을 조명하고 무엇이 그들을 퍼스트레이디로 만들었는지 살핀다. 〈황금가지·1만2천원〉

모디쉬갤러리 夏 특가판매

30% 할인

모디쉬갤러리 광주점

010-3351-3301 / 010-3351-8794

한일 익스프레스

만일카 - 웨리호브!

만일카 - 웨리호브! 1호

만일카 - 웨리호브! 2호

010-3351-3301 / 010-3351-8794